

‘어파이어’ 문자적 인간에게 다가온 위기

인간과 세계를 매개하는 것 - 문자, 구술, 이미지

2021131020 권민서

“여름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쪽 구석에서 자기 몰스킨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는 그런 멍청이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정말 오싹해진다.” 페츨트 감독이 ‘어파이어’에 대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한 말이다. 레옹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자적 인간이다. 바다로 피서 와서 하는 일은 소설 원고 마무리이며, 해변에 누워서도 손에 책을 들고 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다른 사람의 제안을 거절할 때 핑계는 늘 글쓰기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들이 문학에 밝은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문자와 글을 매개로 한 레옹과 세계의 접촉은 좀처럼 레옹 개인의 자폐적 세계를 넘어설 창구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를 문자적 인간 레옹으로 대표되는 문자문화 및 문자 의식의 특징에서 찾자 한다. 문자문화와 대비되는 구술문화, 문자 의식과 대비되는 이미지 의식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영화 ‘어파이어’에 대한 감상을 개진하려고 한다. 나아가 영화 매체가 문자적 사유, 구술적 전달, 이미지의 매개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종합예술로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데이비의 게이 스프레이 일화에서 구술문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데이비가 말로 풀어가는 작은 이야기는 펠릭스, 나디아, 레옹 그리고 관객들까지 모두를 몰입시킨다. 그는 개인적인 일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새로 초대된 손님이자 지난밤 나디아의 연인인 데이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펠릭스와 레옹의 관심이 그가 말하는 문장 하나 하나에 집중된다. 또한 “너를 게이로 스프레이하고 말거야”라는 아랍인의 황당한 협박이 주술처럼 되풀이되는데 이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며 그 말이 가진 모호함과 신비로움이 부각된다. 구술문화의 반복적이고 풍부한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나디아는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사람만큼이나 흥미진진하게 듣는다. 구술은 언제나 ‘지금 여기’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비가 이야기를 하기 전과 후로 그와 펠릭스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며 네 사람이 그려가는 여름 풍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관객도 레옹도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데이비드와 펠릭스의 키스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그 순간을 위한 암시였던 것으로 순식간에 자리 잡는다. 구술은 감정이입적이고 참여적이며 생활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펠릭스와의 키스로 인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데이비가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지어낸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하지만 마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데이비가 실제로 게이 스프레이로 칠해지더라도 한 것처럼 구술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창조하는 변화는 결정적이다.

나디아의 「아스라」 낭송 장면에서도 구술문화의 특징이 드러난다. 처음에 헬무트와 번갈아 주고받으며 낭송한 뒤, 나디아가 온전히 한 번 더 낭송한다. 방금 들었지만 다시 새롭다. 나디아가 이미 들었던 얘기지만 새삼 흥분한 표정으로 데이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관객들도 두 번째 낭송에 또다시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시 「아스라」의 의미는 낭송되는 그 자리에서 창출되는데, 두 번째 낭송에서 의미의 미세한 조정과 강화가 이루어진다. 구술문화의 정신역학을 연구한 월터 옹은 구술담론이 “실제 인간의 실존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단어의 의미가 끊임없이 현재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데이비가 이야기를 하나 한 것뿐인데 그와 펠릭스의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나디아의 잔잔한 낭송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처럼 여겨지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적 인간 레옹이 데이비의 이야기와 나디아의 낭송으로 얻은 것은 빈약하고 피상적이기만 하다. 데이비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된 네 사람의 관계가 그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이야기가 구술되는 동안 펠릭스와 데이비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없이 계속해서 데이비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디아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낭송을 두 번이나 듣고도 그에게 와닿은 것은 단지 나디아가 문학을 모르는 무식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레옹이 낭송 전후로 이해한 국면의 변화는 자신의 원고를 읽고 “Bullshit”이라고 야멸차게 평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문학 박사생이었다는 것뿐이다.

다음으로 문자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한 매개라는 관점에서 펠릭스의 바다 사진에 대해 생각해보자. 영화가 시작되고 관객들은 두 주인공에게 각각 서로 다른 과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펠릭스의 사진 포트폴리오는 레옹의 소설 원고와 대칭을 이룬다. 영화가 진행되며 해결되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영화의 두 축이 되는 것이다. 펠릭스의 과제는 이미지를 통해 바다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는 포트폴리오 생각에 매몰되기보다 일단 바닷가로 수영하러 간다. 바닷물로 온몸을 적시고 돌아오는 펠릭스의 모습은 검은 옷을 입고 그늘에 앉아서 원고를 붙들고 있는 레옹의 모습과 크게 대조된다.

매체이론가 빌렘 플루서는 이미지가 탄생 맥락, 구조, 수용 방식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이 이미지를 수용할 때 한 지점을 보고 다른 지점을 본 뒤 다시 이전에 보던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성에 있다. 선형적인 줄글로 세계를 재현한 문자와 달리 이미지에는 시선이 따라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적 사유 속에서 시간은 돌이킬 수 있는 것, 원환적인 것, 가역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말하자면 이미지, 즉 펠릭스의 ‘바다를 보는 사람들’ 사진 안에 시간이 고여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서는 이미지가 신화와 마술의 세계를 이루는 선사시대의 코드라고 보았다.

이미지의 마술적 속성은 영화 속에서 바다의 인광 현상(Meeresleuchten)으로 형상화되었다. 바다가 빛을 낸다고 펠릭스와 나디아가 이야기하지만 레옹은 혼자만 이 마술적 장면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산불이 자신의 친구들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뒤늦게 밤바다에 나가 은하수처럼 빛나는 바다를 본다. 이때가 발트해로 피서 온 이후 그가 바다와 유의미한 교류를 하는 유일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바다에 대한 경구들이 많은데 그중 멕시코 소설 <The Iliac Crest>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우리는 아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 바다에 간다.” 바다의 ‘알 수 없음’은 글에 담길 수 없는 것이다. 대신 펠릭스의 사진에 의해 문자 없이, 언어 없이 담겼다. 펠릭스는 바다와 인간 사이, 세계와 인간 사이의 알 수 없는 관계를 사진으로 포착한 것이었다.

영화 ‘어파이어’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레옹이었다는 사실이 영화 마지막에 밝혀진다. 이는 일종의 반전인데,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주변상황이 돌아가는 형편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하던 레옹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자적 인간 레옹과 문자문화의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구술언어와 비교했을 때 문자언어는 분명 생활세계와 거리를 두며 참여적인 성격이 약해진다. 또한 장면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이미지적 사유와 비교했을 때 세계를 일련의 선들로 재현하는 문자적 사유는, 플루서의 말을 빌리자면 더 ‘빈곤’하다.

하지만 문자문화는 생활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둬으로써 세계를 추상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삼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미지적 시간 의식이 순환적인 것과 달리 문자를 사용하는 인간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 비가역적인 것, 역사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역사’라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독일어 단어 ‘Geschichte’가 ‘history’와 ‘story’ 즉 ‘역사’와 ‘이야기’를 동시에 지목한다는 점을 통해 설명된다.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구조화하여 역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문자문화의 특징은 문학 중에서도 근대적 양식인 소설의 존속 원칙이자 본질인 것이다.

산불의 형태로 다가오는 위기를 제때 알아채지 못하고 세계를 관찰할 뿐 주변과 교류하지 못하는 레옹의 모습은 데비드와 나디아의 구술, 펠릭스의 이미지와 대비를 이룬다. 이를 통해 영화 ‘어파이어’는 미성숙한 문자적 인간의 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사건과 경험을 종합하여 아름다운 구조를 지닌 소설로 써내려간 사람도 레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영화가 글쓰기와 그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만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레옹이 쓴 소설을 영화라는 또다른 매체가 담고 있는 형상을 통해 영화 안에서 결국 문자적 사유, 구술적 전달, 이미지의 매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이들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감정이입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생활세계와 밀접하면서도 구조화된, 가역적이면서도 역사적인 형식으로 영화가 성립하게 된다.

[참고한 글]

빌렘 플루서, 『코무니콜로지: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월터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언어를 다루는 기술』,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2018.

Garza, Cristina Rivera. The Iliac Crest, Trans. Sarah Booker, New York City: Feminist Press, 2002.

Luise Mörke & Tobias Rosen, 「Burning Down the House: Christian Petzold on “Afire”」, 2023.03.14. (<https://mubi.com/en/notebook/posts/burning-down-the-house-christian-petzold-on-afire>), 검색일: 2023.12.08.